

우리아기 심장 여러분 정성으로 땀니다

심장재단 지원 2만번째 새생명
박지원군의 어머니 최나영씨

“지원이가 훌륭하게 커서 다른 사람
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
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”

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(이사장
이용각)의 지원으로 서울대병원에서
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2일
퇴원한 다섯달배기 박지원군의 어머
니 최나영(27·제주시 용두동)씨는 볼
에 붉게 혈색이 도는 아들을 꼭 끌어안
고 이렇게 말했다.

지원이는 한국심장재단의 지원으로
새 생명을 찾은 2만번째 환자다. 지원
이의 수술비용 1천여만원은 한국심장
재단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았던 ‘선배
환자들’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여
서 더욱 뜻 깊다.

최씨는 지난해 11월 둘째아들 지원
이의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
가 아들에게 심장병이 있다는 사실을
알게 됐다. 좌·우 심실 사이에 구멍이
있고 폐동맥이 좁아 혈액순환과 산소
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‘팔로씨 4중증’
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. 이 병을 가진
환자들은 손과 발, 입술 등이 파랗게
변하는 ‘참색증’이 나타난다. 아기가
갑자기 울면 심장에 무리가 와 발작을
일으킬 수 있다는 의사의 충고에 따라,



최씨는 지원이가 울지 않도록 늘 품에
안고 지냈다고 한다.

하지만 더 큰 문제는 치료비였다. 남
편 박철민(34)씨가 벌어오는 월 70만
원 정도의 수입으로는 치료비를 마련
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. 게다가
카드빚도 1400만원이나 지고 있었
다. 최씨는 ‘처음 병원에 가서 지원이
의 병이 희귀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
아이 걱정보다도 치료비 걱정이 앞섰
다’며, ‘도와주신 분들께 어떻게 감사
드려야 할지 모르겠다’고 말을 잊지
못했다. 유신재 기자 ohora@hani.co.kr